

소화성 궤양은 참으로 신비한 질환이다. 아직까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물에서 있다는 말은 없다. 또 위산과다 분비 등 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왜 궤양은 호발 부위에 한두개만 생기고 동그랗게 또는 타원형으로 패이면서 좀처럼 낫지 않는지? 근본적으로는 소화성 궤양의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쉽게는 소화성 궤양의 원인은 궤양을 일으키는 공격인자와 궤양을 방지하는 방어인자 사이의 불균형에 의하여 공격인자의 우세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격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산이 있다. 그 밖에 펩신과 같이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도 있다.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여러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심한 스트레스 등 뇌의 미주신경을 통한 위산분비의 과다자극,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홀몬의 과다분비, 장액의 역류 증양 등도 공격인자가 된다. 방어인자로는 우선위점막에 붙어 있는 점액층이 있고 점액세포 자체도 방어인자로 작용한다. 점액세포는 중조(NaHCO<sub>3</sub>)를 분비하는 작용이 있어서 강산에 의한 세포손상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어인자들은 쉽게 측정이 어려워져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프로스타그란딘 제제 등 방어인자를 증가시키는 약제가 많이 개발되면서 부터 이분야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위산은 위체부의 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산(HCl)을 말한다. 이 위산이 최대 농축되었을 때에는 pH 1.0 정도로서 피부에 닿으면 금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위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 위산은 위 속으로 들어오는 각종 세균을 멸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산의 분비는 여러가지 형태로 자극을 받고 조절이 된다. 사람이 음식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미주신경을 경유하여 위산분비를 자극하는 것이며 이것을 뇌기라고 한다. 또 음식이 들어가서 팽창되어 위 전정부가 자극을 받거나 위내용물이 이곳을 자극하면 이곳에 가스트린이라는 위산분비 홀몬이 자극되어서 위산이 분비되는데 이것을 위기라고 한다.

### 소화성 궤瘍

### 原因과 그 治療对策

십이지장 이하의 소장도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것을 장기 또는 「십이지장 브레이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십이지장 및 소장을 대량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위산분비의 과다현상이 일어난다.

소화성 궤양의 발생에는 위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산분비가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 있다. 위산이 많은 적든 간에 위산분비를 억제하거나 위산을 중화시키면 궤양이 치유되게 된다. 항간에서는 위산과다가 중요한 질환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위산과다인 사람이 모두 궤양을 앓는 것도 아니고 과다한 위산이 궤양을 초래하여야 비로써

증상이 발생되게 된다.

십이지장 궤양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위산의 과분비가 많다. 십이지장 궤양환자에서 무슨 이유로 산분비가 많아지는지는 잘 모른다. 십이지장 궤양은 혈액형 「O」형인 분에 많으며 실제로도 소화성 궤양은 유전적인 소질과 관계가 많다. 또 만성 폐질환, 간질환, 체장질환, 부갑상선기능 항진증 등에서도 십이지장 궤양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발생된다.

십이지장 궤양은 운전사, 은행원 등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많으며 이것은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 동물실험에서도 쥐를 꼼짝못하게 묶은 후에 4℃의 찬물에 담가 놓으면 얼마 후에는 모두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위궤양이 많았지만 근년에는 십이지장 궤양이 증가되어서 선진국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스트레스 환경과 깊다고 설명된다.

위궤양 환자에서는 십이지장



閔 榮 日  
〈서울아산中央病院〉  
〈消化器内科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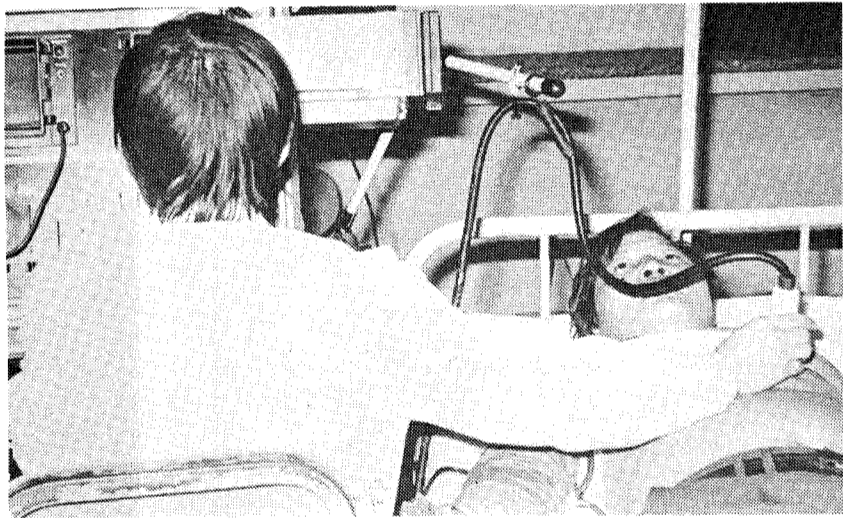
아니라 중조(NaHCO<sub>3</sub>)가 분비되고 있어서 위산이 점막세포 내로 역류되는 현상이 방지되고 있다. 그러나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 위산의 역류에 의하여 점액층이 파괴되고 점액세포층이 손상을 받아서 위점막에 궤양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궤양의 발생에는 위점막에 흐르는 혈류도 중요하며 화상, 뇌손상 등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위점막에 혈류가 차단되는 것이 위궤양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소화성 궤양은 연령과 관계가 많아서 젊은 나이에 주로 십이지장 궤양이 많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위궤양이 증가하며 같은 위궤양도 고령화와 더불어 위의 상부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의 위축성 위염의 발생 및 퍼져나가는 현상과 일치한다. 소화성궤양은 점막의 이행부위에서 위산에 적셔지고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전정부와 체부의 십이지장 구부, 위와 식도의 경계에서 상부인 식도 점막에 소화성 궤양이 발생된다.

최근에는 위점막 내에 캄필로박터라는 특수한 세균이 자라서 이것이 위점막의 염증을 일으켜서 이 염증이 소화성 궤양의 모지가 된다는 학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 原 因

非스테로이드성 消炎鎮痛劑 등 潰瘍發生에 重要役割  
現代社會의 복잡한 스트레스성 環境과도 密接



◆소화성궤양은 연령과 관계가 많은데 젊은층에서는 십이지장궤양이 많고 연령이 많을수록 위궤양이 증가하며 특히 십이지장궤양의 경우 혈액형이 「O」형인 사람에게서 많아 유전적소질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사진은 本文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궤양 환자와 다르게 정상인에 비하여 위산분비가 정상내지 감소되어 있지만 절대 무산증은 아니다. 무산증 환자에서는 소화성 궤양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다. 위궤양에서는 위산과 더불어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담즙에 의한 위점액층의 손상과 같은 방어 인자의 감소가 중요하게 생각된다. 위궤양의 발생에는 유문의 기능이 약하여서 담즙을 포함하는 장액이 거꾸로 위속으로 역류하여 넘어와서 위점막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 위궤양형성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점막에는 점액층이 있고 그 밑에 점액세포층이 있으며 또 이 점액세포층에서는 점액 뿐만

면역기능과 효소의 營養寶庫



보사부제 27-2호  
권장소비자가격 : 28,000원

맥주효모에 비타민E, C와 메치오닌을  
강화시킨 미생물식품



■ 리포마-에이<sup>®</sup>는

면역기능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  
특수다당체, 핵산, 비타민 E, C 등이 풍부합니다.

■ 리포마-에이<sup>®</sup>는

인체의 모든 대사활동을 조절하는 효소의 재료영양소—  
비타민 B군, 미네랄, 미량원소, 식물성단백질이 풍부합니다.

■ 리포마-에이<sup>®</sup>는

건강유지 및 회복에 있어 지름대역할을 하는 면역기능과 효소의  
완벽한 영양집결체입니다.

채질개선식품 전문생산업체  
[주]한국바이오에너지  
Korea Bio-Energy Co., Ltd.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3-4  
TEL 547-7056  
548-3143, 0264

- 서울경기동부총판 295-0928 ● 서울경기서부총판 662-0874 ● 서울경기남부총판 679-8107 ● 서울강남총판 553-1662
- 인천총판(032) 423-1986 ● 부산경남총판(051) 246-7431 ● 대구경북총판(053) 46-5692 ● 광주전남총판(062) 232-5337
- 전북총판(0652) 86-6117 ● 충남북총판(예산)(0458) 2-6656 ● 대전총판(042) 255-0144